

# 우리 나라 大學의 現實과 課題



祥明女大 學長 郭 鍾 元

## I. 머리말

1970年代 中半期에 實驗大學 制度를 권장하던서부터 우리 나라 大學은 일대변혁을 겪게 되었다. 물론 우리 나라 大學들의 짧은 歷史에 비해서 그 質과 量의 발전은 비약적인 것이었지마는, 엄격히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 大學들이 設立하기 경쟁과 學科의 증설이나 定員의 增員 등의 경쟁으로 一貫하였고, 大學다운 大學을 만드는 質的인 充實에는 等閑한 편이었다.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다고 해야 옳을는지 모르겠다. 캠퍼스 안에 建物이 늘어나고, 學生數가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속되어 오던 大學街가 實驗大學이 시작되면서부터, 제법 外國의 大學들과 같은 形態의 공부를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함께 치룬 일이지마는 보통 進통을 겪은 것이 아니다. 教授나 學生들이 過去式대로 하던 쉬운 공부방식인데 비해, 실험대학 제도의 공부방식은 까다롭고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初期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마는, 점차적으로 長點이 발견되고 이해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實驗大學 制度가 잘못되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大學들은 아직도 고쳐야 될 점이 너무나 많고, 실험대학 제도에서 행하던 內容도 補完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 평소에 내 나름대로 느끼던 大學의 몇 가지 問題點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質的 充實化

大學教育의 質的 充實化 문제를 云謂할 때, 어찌 그 問題點이 한두 가지에 그치겠는가? 또 大學에 몸담고 있는 大學人이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저마다 자기의 所見이 있을 터인데, 그 各人各색의 의견들을 어찌 여기에다 종합해서 言及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본 문제 중에 가장 重要하다고 느낀 것을 여기에 말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것은 첫째로 教授方法의 改善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 나라 많은 教授들이 개선하고 있고, 또 改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안다. 教授方法은 그 敎科目의 性質에 따라 多樣해야 되기 때문에 一律적으로 한 가지 方法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등 그 性格에 따라 거기에 맞게 敎수방법도 달라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문제는 어떤 專攻方面이든간에 「산 知識」을 가르치는 敎授방법으로 改善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들의 講義는 산 知識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過去의 우리 나라 大學은 學生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텍스트와 노트만 들고와서 강의실에 들어가고, 教授는 한 時間 내내 강연식으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은 學生들이 다음날 그 과목시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그대로 와서 들고만 가는 식의 강의방식이었기 때문에 산 知識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人間の 頭腦는 기억의 限界가 있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전부 暗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教材를 읽어와서 서로 質問과 回答을 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조사·분석을 하여 시간중에 발표를 하고, 같이 조사한 다른 그룹의 보고서와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다른 점을 토론도 하고, 마지막으로 담당 교수의 講義를 들어서 結論을 내면, 學生 스스로의 손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체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산 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라버스에 제시된 과제물이, 교수에 의해 하나 하나 所感이나 修正指示로써 朱書되고 그것이 한 學期分 전체로 체크되어, 成績物에 合算이 되며, 또 중간·기말의 試驗成績 評價를 엄격히 하여 學事警告率이 높아질 때 학생들의 공부하는 熱度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大學教育의 質的 充實化에 있어서 그 첫째 關鍵이, 教授들의 教授方法 改善에 있다고 보고, 우리 모두가 지금은 서투르더라도 舊習을 脫皮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될 일이며, 하루속히 우리 나라 大學街에 뿌리가 내려 定着化되도록 힘써야 하리라 생각한다.

### Ⅲ. 教養教育의 問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外國 大學에서는 學部課程을 教養教育課程으로 충당하고, 專攻學問은 大學院에서 한다고 한다. 물론 대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한다.

學部 4년 동안을 교양교육에 치중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社會에 나갔을 때, 폭 넓게 모든 職種에 適應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大學을 졸업한 사람이면 폭 넓은 교양을 갖추어야만 한 사람의 知性人으로서 자격이 具備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나라의 大學들은 대개 教養科目이 1,2 學年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1學年 때에 모두 다 들어 있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教養科目 강의보다 專攻科目 강의에 훨씬 큰 比重을 두고 있고, 대개 4 對 1이나 5 對 1의 比重으로 교양과목 學點이 적은 편이다.

1,2 學年 때의 教養學科科目은 專攻學科의 區別 없이 共通으로 이수해야만 하고 전체 학생들이 일단은 거쳐가야 하며, 語學科目을 빼면 哲學, 心理學, 倫理學, 法學, 自然科學 등 기초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學術用語나 熟語들을 익히기에 바쁘다. 高等學校를 갓 나온 학생들이 概念的, 觀念的, 理念的, 意識的, 抽象的, 具體的, 主觀的, 客觀的, 主體意識, 純粹理性批判 등 그 밖에 처음 듣는 學術用語들을 들으면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전연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學術用語 습득기간에 불과한 것이다.

大學의 교양교육이 이와 같은 學術用語의 습득기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적어도 대학 재학중인 全期間을 통해서 哲學概論이나 東·西洋의 哲學史나 文化史, 東西洋, 古代史 및 中世史, 倫理學, 論理學, 心理學, 東洋儒敎의 傳統書, 韓國의 傳統文化書, 自然科學에 대한 解說書, 宗教入門書, 著名人士의 人生讀本, 참회록, 東西洋의 古典文學作品 등 광범하게 讀書目錄을 정해 놓고 차례로 讀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知性人다운 人格의 完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大學의 교양교육은, 교과과정에 정해진 교양과목의 學點을 따기에 餘念이 없고, 일정비율의 탈락자 속에 끼이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와 씨름하기 바쁘며, 과제물을 작성해 내기에 눈코 뜰 틈이 없다.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성급한 獨斷과, 黑白論理에 치우치기 쉬운 습성도 바로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은 광범한 교양독서의 不足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大學은 각자 자기 대학 나름대로 學事警告制를 엄격히 시행해서 자연탈락이 많이 생기도록 유도할 하여 졸업 때에 가서는 學生定員數에 近似值 人員만 남도록 하면, 바람직한 학사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Ⅳ. 產學協同과 愛國教育

우리 나라 大學에서는 대체로 純粹理論教育이 많고 實用教育이 적다. 그 적은 실용교육 중에서도 理論時間에 비해 實驗實習時間이 그리 많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理工系 실험실습도 學內에서만 발달

릴 뿐, 學外로 나가 實際 現場에서 직접 자기 손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大學教育이 잘못하면 空理空論을 가르치고, 實際社會에 당장 適應될 수 있는 人間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다. 大學 卒業生들을 採用하는 많은 企業體들이, 採用하자마자 얼마간의 尙當 期間 동안, 新入社員 研修를 시키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는 그 研修期間을 거친 뒤에도, 企業體 안에서 한 사람 몫의 일을 하려면 꽤 오랫동안 그 業體 안에서 일을 배워야만 한다고 한다. 그것은 大學에서 배운 공부가 實際社會와 동떨어진 것을 배우고 있었다는 結論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外國 大學들은 대개의 경우 產學協同體制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大學 안의 實驗實習場은 社會에 公開되어 있고, 반대로 일반 企業체의 工場은 또한 大學生들의 實習場으로 公開되어 있는 것이 常例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大學 안에 企業의 일부가 들어와 있고, 반대로 企業體 안에 大學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有機體의 相互連關關係를 이루고 있다. 企業體가 필요로 하는 機械모델을 大學研究팀에 위촉을 하여 만들어 내어 그 모델의 原型대로 製品을 만들어 市場에 내어 팔기도 하고, 教授들은 또한 그 業體의 研究費를 받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物품을 創案해 내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企業體의 高級 幹部가 大學에 나와서 시간강의를 맡아서 경영실무를 가르치고,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자기 企業체에 데려와서 실무 실습을 시키기도 하며, 그러한 사이에 유능한 학생이 발견되면 자기가 있는 企業체에 採用도 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오늘날 世界 많은 나라들의 大學研究所는 國家開發事業에 總力을 集中하고 있다. 물론 人文科學이나 社會科學도 그 나름대로 研究가 進行되고 있겠지만, 그보다는 自然科學方面, 특히 國土開發이나 自國의 生活環境 變革을 위한 것이나, 食糧의 品質改良을 위한 것, 또는 자기 나라의 發展策을 위한 研究 등은 우리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의 大學研究所들이 自國의 國家開發에 力點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곧 오늘날 世界가 눈에 안 보이는 經濟戰爭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各國이 저마다 保護貿易에 熱을 올리는 것은 貿易戰爭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무역전쟁은 바로 世界가 오늘날 經濟戰爭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 大學들에서 愛國教育, 愛國精神涵養教育이 새삼 절실히 要請된다는 것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경제 전쟁의 승리가 바로 愛國教育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愛國教育은 「내 나라」 意識의 強化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내가 태어난 이 땅이 바로 「내 나라」라는 생각이 희미할 때는, 國家開發에 참여하려는 意慾이 박약하고 公的인 일보다는 私的인 자기 개인의 利得만을 앞세우게 된다. 따라서 「내 나라」 意識이 선명하고 강렬한 知性人이 많은 社會는 혼란한 秩序를 바로잡고 危機를 事前에 현명하게 잘 防禦한다. 그렇다고 自國利益만 생각하고 國際社會를 度外視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大學은 愛國教育을 통해 「내 나라」 意識을 강하게 마음 속에 심어 주고, 國家開發에 총력을 경주하여 국제적 경제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우선 부과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 V. 맺는 말

大學은 그 나라의 運命을 左右하는 中樞的 機能體라고도 한다. 그만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大學을 위하고 보호해 주며 또한 막대한 財政을 투입하여 國·公·私立間에 支援育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大學들은 國家的으로 경제 성장면에 막대한 人力養成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國際的 水準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問題點들은 根本的으로는 大學 自體에서 反省하고 是正할 점들이지만, 그 밖의 일부는 行政府나 社會 各機關, 또는 많은 企業體들이 함께 協助하고 支援해 주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좀더 많은 國民들이 大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보다 合理的이고 보다 建設的, 發展的인 의견 제시와 協助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